

2011년 9월 30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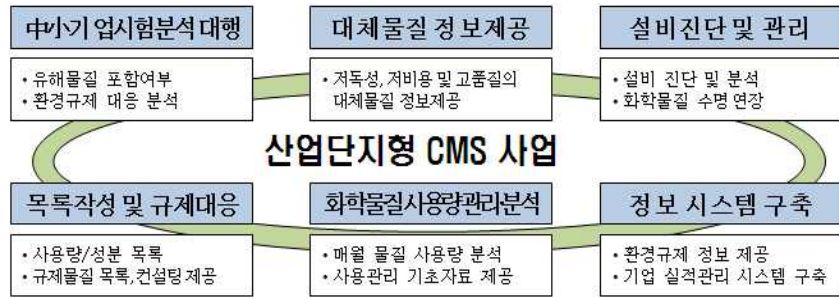
자료문의 : 이경식 산업환경과장(02-2110-5131), 이한웅 전문관(3922)

산업단지내 中小기업들의 화학물질관리 미리미리 준비한다.

- 산업단지에 입주한 中小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**순과정관리** 지원 -
- 관계부처 협의 중인 **회평법*** [안의 기업영향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-

* 「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(’11.2.25 ~ ’11.4.26 입법예고)

- 지식경제부(장관: 최종경)는 국내외 화학물질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규제 대응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,
 - 한국형 “산업단지 화학물질관리서비스(Chemical Management Service, 이하 CMS)” 사업의 일환으로
 - ※ CMS : 기업내 화학물질 순과정(구매, 운반, 사용, 폐기, 정보관리)을 외부 전문기업이 관리하여, 화학물질 사용량저감 및 원가절감 효과를 창출
 - 반월·시화공단 내 10개 중소기업들을 묶어 화학물질관리 전문회사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“산업단지형 CMS 사업”을 추진키로 함
 - ※ (주)씨와이씨 등 10개 중소기업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‘산업단지형 화학물질관리 시범사업’ 협약식 체결(’11.9.30)
- 본 사업은 화학물질관리 역량이 어려운 中小기업을 대상으로, 해당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▲유해물질포함여부, ▲대체물질 정보제공, ▲설비진단·관리를 통해 화학물질 사용량 최적화 및 사용 수명연장, ▲정보 시스템구축 등 **화학물질관리 순과정에 걸쳐**
 - 화학물질관리 능력이 취약한 산업단지 입주 中小기업에 자문하고 개선책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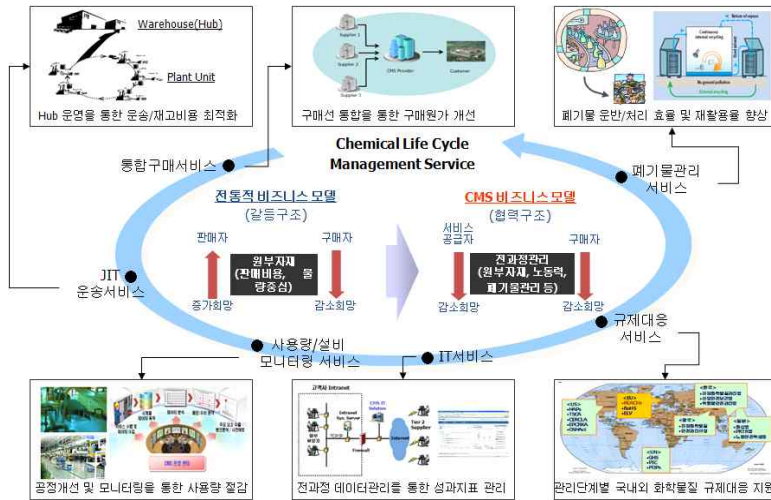


< 산업단지형 CMS 사업 >

- 본 사업을 통해 참여한 중소기업은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, 재무개선, 유해물질 관리 등 직·간접효과를 거두어
 - 사업시행 기간인 향후 2년간('11~'12), 인건비(10%)·자재관리용(20%)·폐기물처리비용(20~60%)·유해물질사용 감소(4%) 등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기반을 갖출 것으로 참여기관들은 예상
- 향후, 지식경제부는 본 사업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
 - 대상기업, 서비스 영역(구매, 운반 등)을 확대하고
 - ※ 대상기업 : 10개('11년) → 20개('12년, 신규 10개, 기존 10개 유지관리), ※ 총 예산 : 8억
 - 서비스 제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“한국형 CMS 모델”이 우리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
- 아울러, 최근 입법 예고된 화평법*에 의해 중소기업 부담이 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가운데
 - ※ 「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의 약칭 : 제조·수입되는 신규·기존 화학물질(연간 0.5톤 이상)의 등록, 평가, 허가 및 사용 제한 규정
 - ※ 기업의 비용부담은 물질정보 생성 등 직접비용(8천~7조9천억원)과 원가상승, 정보공유 등 간접비용(최대 3조4천~13조2천억원) 유발 예상('11.4월, 산업연구원)
 - 금번 사업은 향후 화평법(안) 시행시 기업체 단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기업들이 이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 - ※ 한편, 경제계는 화평법 제정과 관련해서 법 제정 이전에 기업단위의 영향분석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국회 및 정부에 제시한 바 있음('11.8월, 대한상의 등 16 단체)
 - ※ CMS 도입 시 ▲사용량 실적관리 및 환경규제 정보 시스템 활용, ▲규제물질 목록 및 규제대응 컨설팅, ▲시험분석 및 대체물질 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

별첨 1 : 화학물질관리서비스(CMS) 개요 및 주요 사업성과

◆ (CMS 정의) CMS 전문기업이 일반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순과정(구매, 운반, 사용, 폐기, 정보관리)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여 화학물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화학물질관리 서비스



<화학물질관리 서비스 개념도>

◆ (CMS 해외사례) BASF, DuPont, GM, BASF 등 자동차, 화학 산업분야에서 CMS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

○ (미국) '96년 CMS 공급자, 고객사 및 학계 등이 비영리법인인 CSP(Chemical Strategies Partnership)을 설립하여, 가이드라인 개발, 홍보, 인력양성 등 CMS 보급·확산 추진

※ 연간 10억불 규모('09)의 CMS 시장을 형성하여 자동차, 항공, 전기전자, 철강 등 산업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, 각 업체는 화학물질비용의 40% 이상 절감('09, CMS Industry Report)

○ (유럽) BASF, DuPont, Shell 및 페인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Chemical Leasing 제도 도입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시행

※ 유럽과 개발도상국의 화학물질 공급체계에 적용하여 30% 이상 화학물질사용량을 저감했으며 770억 유로 규모의 CPS 시장 규모 형성('06, Chemical Product-Services in the European Union)

◆ 국내 CMS 사업 추진경과 및 성과('08~'10)

		성과	
분야	구분	경제성과	환경성과
시범사업	전기전자 ('08~'10)	· 사용량 원단위 8.5% 절감 · 화학물질 관리시스템(e-CMS)도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	· 유해성분 함유 자재수 3.8% · 유해물질 폐액발생 약12톤/년 절감 · 작업자 건강 및 작업장 환경리스크 절감
	자동차 ('08~'10)	· 설비고장 정지율 0.72% 저감 · 화학물질 사용량 및 폐기물 7.2억 절감	· 화학물질 사용저감으로 인한 환경배출 절감
	금속/시멘트 ('09~'11)	· 윤활유 구매금액 2.6억 절감 · 윤활유 사용량 평균 13% 절감	· 환경폐기물 30% 절감